

간호대학생의 카테바 실습일지에 대한 내용분석

정추영*, 서영숙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of Journals for Cadaver Practice Experiences in Nursing Students

Chu-yeong Jeong*, Young-sook Seo
Dept. of nursing, College of Daegu-Health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카테바 실습교육 일지를 이용하여 카테바 실습교육의 경험을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6년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이다. 연구 참여자는 D시 소재 D대학 간호학과 2학년 재학생으로 카테바 실습교육에 참여한 20명이다. 자료는 연구 참여자들이 카테바 실습교육 기간 동안 매일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용지에 익명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3개의 영역에서 8개 범주와 21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였다. 카테바 실습교육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경험은 '불안', '몰입', '성찰'의 영역으로 나타났다. '불안' 영역에서는 '걱정됨', '두려움', '놀라움'이 포함되었으며, '몰입' 영역에서는 '흥미로움', '집중함', '알아감'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성찰' 영역에서는 '존엄', '감사' 등으로 범주화 되었다. 따라서 카테바 실습교육 전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지지와 불안 완화를 위해 상담 및 카테바 실습교육을 경험 한 선배와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카테바 실습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who used journals for cadaver practice experience. The data were collected between October 26 and October 28 2016. Participants were 20 2-year nursing students with cadaver practice experience at D College in D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daily sheets by self-reporting their experiences during the cadaver practice program. The participants wrote their experiences anonymously on sheets on paper. Data were categorized and coded by using content analysis. Eight categories and 21 statements were drawn from three domains. The study revealed that participants experienced anxiety, flow, and reflection of cadaver practice. The analyzed domains were 'anxiety', 'flow', and 'reflection'. 'Anxiety' was categorized into 'worry', 'fear', and 'surprise'. 'Flow' was categorized into 'interesting', 'focusing', and 'knowing'. 'Reflection' was categorized into 'dignity' and 'appreci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seniors who have experienced counseling and cadaver practice for psychological support and anxiety relief of nursing students before cadaver practice. In addi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cadaver practice program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Keywords : Cadaver, Content analysis, Experiences, Journals, Nursing student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의료인으로서 간호사는 인간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전문가로 인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생명윤리

감수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간호학의 성과기반 교육 과정은 임상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있는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간호현장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간호대학에서는 대상자들을 총체적으로 접근해야한

*Corresponding Author : Chu-Yeong Jeong(College of Daegu-Health)

Tel: +82-53-320-1465 email: jcy0902@dhc.ac.kr

Received June 8, 2017

Revised (1st July 20, 2017, 2nd July 27, 2017)

Accepted August 17, 2017

Published August 31, 2017

다고 강조하지만 실제 간호 실무에서 대상자의 신체증상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해부생리학적 지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1]. 이때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면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2].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졸업 후 간호대상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임상간호사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갖추도록 요구된다[1]. 한편, 간호현장에서는 간호학을 전공한 졸업생들의 기본적인 지식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간호교육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3].

해부학은 간호대학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할 기초전공 교과목으로 교과과정에 편성되어 있다. 한편 학생들은 기초간호학 과목 중 해부학이 가장 어렵고 부담스러운 교과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5]. 이에 따른 다양한 교육 방법 개선 전략 중 특히 카테바 실습교육은 인체구조를 관찰하고 직접 접촉하면서 학생들이 집중하며 능동적 태도로 호기심을 보여 가장 효과적인 학습방법으로 보고되고 있다[4,6,7]. 또한 해부학의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이론교육과 카테바대상 실습교육이 필수적이며[7], 다른 형태로 대체하던 해부실습의 경우에도 카테바 실습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8].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간호대학이 실습장소의 부족과 해부실습의 접근성의 어려움 등으로 카테바 실습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거나 일부 실시 중인 대학에서도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조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9].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간호대학에서는 국내 의과대학이나 국외의 대학과 병원에서 실시하는 해부학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카테바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6,10].

한편 의학 교과과정은 해부학 실습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되는데, 선행연구[11,12]에서는 해부과정을 거치며 학생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지식, 이해, 전문직 정체성 등의 인지적 부분과 인간 존엄성, 죽음 등의 정의적 차원 및 생명윤리 차원으로 보고하고 있다. 카테바 실습은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부정적 반응을 나타나게 하는 스트레스 상황이지만 교육적 의미와 영향력을 조명하며[13] 해부학 실습 경험을 통해 ‘의사가 되어감’을 배운다고 보고하고 있다[14]. 그러나 해부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으나 카테바 해부실습을 처음 경험하게 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인체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

해와 간호학문에 대한 열의[10]. 심리적 경험[1,2,15], 인간 존엄성과 생명윤리의식[16]을 주로 다루었다.

지금까지 국내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카테바 실습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카테바 실습에 대한 필요성 연구[10], 해부실습 견학 효과[17], 실습 스트레스와 실습태도[1], 영적안녕과 죽음태도[16] 등으로, 이들 대부분 연구는 조사연구와 카테바 실습 전후 지식 정도와 태도를 비교한 연구들이다. 한편 실제적 관찰과 수행이라는 경험의 과정에서는 참여자 자신이 느끼는 의미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로는 간호대학생들의 인체해부 관찰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18]가 국내에서는 유일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간호대학생들이 카테바 실습교육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느끼는지 구체적인 생각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카테바 실습교육 기간 동안 작성한 일지 분석을 통해 카테바 실습교육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카테바 실습교육 참여 학생에 대한 지지 및 정보제공 등의 상담 전략과 카테바 실습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카테바 실습교육 기간 동안 간호대학생들이 겪은 경험에 대해 작성한 일지(journal)를 근거로 카테바 실습교육 참여자들의 주관적 경험을 탐색하여 카테바 실습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D시 소재의 일 대학교 간호학과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간호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카테바 실습교육에 참여한 간호대학생들이 신체적, 심리적으로 어떻게 경험하는가를 확인하는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연구이다. 내용분석은 면담의 필사본이나 일지 등의 문서 자료를 객관적

이고 체계적이며 수량적으로 서술하는 연구방법으로 양적, 질적 분석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는 자료의 특성에 근거하여 범주가 제시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험연구[10] 결과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카테바 실습교육 참여자들의 주관적인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그들의 구체적 반응을 내용분석 연구방법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이다.

2.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을 이용하였다. 대상자는 D시의 일 대학 간호학과 2학년으로 카테바 실습교육에 참여한 간호대학생 20명이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자로 하였다.

표본 수 산정은 Krippendorff[19]의 이론을 근거로 질적 내용분석의 목적은 일반화가 아닌 전이가능성이므로 주제를 뒷받침한 예시의 인용이 표본의 역할이 된다[19]. 한편, 카테바 실습교육에 대한 질적 내용분석의 선행연구는 전무하므로 일지에 대한 질적 내용분석 연구[20]에서 1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 수는 일지에 대한 질적 내용분석의 표본 수를 충족한다.

2.2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해 간호학과 2학년 학생 중 카테바 실습교육에 참여하는 20명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6년 10월 26일 부터 10월 28일 까지였다. 카테바 실습교육의 내용은 1일차는 신체 후면의 척수 및 골반부, 2일차는 신체 전면의 가슴부위를 중심으로 유방과 사지, 3일차는 복부 내 장기와 뇌의 신경, 혈관, 근골격계를 해부 관찰하도록 구성되었다. 카테바 실습교육이 진행되는 3일 동안 자신의 경험과 신체적, 심리적 반응 등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교육 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소감을 작성하여 익명으로 제출하게 하였다. 학생들의 일지는 1인 당 1일 A4 용지 1장 이상 서술하도록 하였으며 총 81장이 수집되어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2.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참여자를 개별적으로 만나 연구자의 신분, 연구의 목적, 절차, 자료수집에 소

요되는 시간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자료는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자료수집 도중이라도 연구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안내하였다. 일지를 무기명으로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경험을 서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익명성을 확보하여 비밀 보장이 유지될 것임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아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였다.

2.4 자료분석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s analysis)은 참여자의 서술형 자료를 분석하여 코딩을 하고 분류하는 과정을 거치는 질적 연구 유형 중 하나이다[21]. 특히 연역적 내용 분석은 기존의 이론을 다양한 상황에서 검토해보기 위한 목적 또는 서로 다른 시점에서 카테고리리를 비교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하기 때문에 선행연구[18,22]에서의 관점과 비교하기 위한 본 연구에 적합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습기간 3일 동안 매일 “카테바 실습교육 참여 후, 어떤 느낌이 들었으며 어떠한 생각을 하였는지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질문에 대해 A4용지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서술하여 익명으로 제출하게 하였다.

분석의 1단계는 원 자료에서 분석 단위인 의미 있는 단어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 내용의 영역은 간호대학생의 인체해부 관찰경험과 관련된 문헌[18,22]을 통해 ‘긴장’, ‘혼돈’, ‘수련’, ‘성찰’, ‘정체성’의 5개의 영역을 확인하였으며, 분석의 단위는 구문과 문장으로 정하고 일지의 내용을 반복하여 읽는 과정에서 관련된 의미 있는 구문과 문장에 줄을 그었으며 줄친 내용이 원래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도록 재 기술하는 과정에서 5개의 영역은 ‘불안’, ‘몰입’, ‘성찰’의 3개 영역으로 설정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일지에서 의미 있는 분석 단위를 확인하였으며 예외적 모순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2단계에서 분석 단위를 범주화시켜서 귀납적으로 배열한다. 유사한 내용을 통합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여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32개의 구문 및 문장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32개의 구문 및 문장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유사한 내용을 모아 범주화(categories)하였으며 같은 범주에 포함된 구문과 문장을 재비교하고 검토하며 최종 범주 8개가 도출되었다[23].

다음으로 도출된 범주에 속하는 구문과 문장 중 유사

한 것 끼리 통합하여 최종 21개의 구문과 문장을 대표적인 진술문으로 선정하였고, 각 진술문에 해당하는 구문과 문장을 수를 수량화하였다.

본 연구자 2인은 질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훈련을 받았고, 연구자 중 1인은 근거이론 연구방법론을 적용한 질적 연구 논문을 게재한 경험이 있으나 내용분석 논문을 게재한 경험은 없으므로 질적 자료 분석의 신뢰성(reliability)과 타당성(validity) 확보에 한계가 있어 다수의 내용분석 논문을 게재한 간호학 교수 2인에게 분석의 과정 전반에 대한 자문과 확인의 과정을 거쳤다. 또한 최종 분석 결과를 참여자 16명에게 보여주어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과정을 거쳤다. 연구자는 원 자료를 전체적으로 읽고 명명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의미 파악을 위해 노력하였다[24,25].

3. 연구결과

3.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인 간호학과 2학년 20명의 연령은 20~26세 범위로 평균 21.6세였다. 종교가 있는 참여자는 10명(50%)이며 남학생 4명(20%), 여학생 16명(80%)이었다. 모든 참여자들은 카테바 실습교육에 처음 참여하였으며 질적 자료 분석에 사용된 일지는 20명이 총 81장을 작성하였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0)

Characteristics	Range or Categories	Mean or n(%)
Age(year)	20~26	21.6
Gender	Male	4 (20.0)
	Female	16 (80.0)
Religion	Have	10 (50.0)
	Haven't	10 (50.0)

Table 2. Scope of Anxiety

Categories	Significant statements(n [†])	n [†] (%)
Worry	I am worried that I will be able to practice Cadaver. (16)	28 (38.9)
	I am worried about what I will see. (8)	
	I am worried that I can understand the progress of the educator. (4)	
Fear	I felt a vague fear for myself that I was not prepared for Cadaver. (15)	27 (37.5)
	I felt a terrible fear of death. (12)	
Surprise	I was amazed at the unexpected appearance of Cadaver. (10)	17 (23.6)
	I was amazed at the actual appearance of the inside of the body. (4)	
	I was amazed at the appearance of an educator without fear. (3)	
Total		72 (100.0)

[†] Multiple responses.

3.2 간호대학생의 카테바 실습교육 참여 경험

연구 참여자의 카테바 실습교육 기간 동안의 성찰일지 자료를 불안, 몰입, 성찰의 3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내용 분석한 결과, 총 21개의 의미 있는 진술문과 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3.2.1 불안 영역

참여자들의 카테바 실습교육 경험 중 불안 영역은 3개의 범주, 8개의 진술문이 도출되었으며, 전체 진술문의 빈도는 72개였다. 분석된 범주의 내용은 ‘걱정됨’ 38.9%, ‘두려움’ 37.5%, ‘놀람’ 23.6%였다. 각 범주의 빈도수가 높은 대표적인 진술문으로는 ‘걱정됨’에는 ‘내가 카테바 실습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됨’(16개), ‘두려움’에는 ‘카테바에 대해 준비 없는 자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15개), ‘놀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카테바 모습에 놀람’(10개)이 포함되었다[Table 2].

3.2.2 몰입 영역

참여자들의 카테바 실습교육 경험 중 몰입 영역은 3개의 범주, 10개의 진술문이 도출되었으며, 전체 진술문의 빈도는 84개였다. 분석된 범주의 내용은 ‘흥미로움’ 45.2%, ‘집중됨’ 28.6%, ‘알아감’ 26.2%였다. 각 범주에서 빈도수가 높은 대표적인 진술문은 ‘흥미로움’에는 ‘무엇을 관찰하고 수행하게 될지 기대됨’(15개), ‘집중됨’에는 ‘정신없이 빠져 들어감’(10개), ‘알아감’에는 ‘원리를 이해하며 보게 됨’(9개)이 포함되었다[Table 3].

3.2.3 성찰 영역

참여자들의 카테바 실습교육 경험 중 성찰은 2개의 범주, 3개의 진술문이 도출되었으며, 전체 진술문의 빈도는 51개였다. 분석된 범주의 내용은 ‘존엄’ 52.9%,

Table 3. Scope of Flow

Categories	Significant statements(n [†])	n [†] (%)
Interesting	I expected what to observe and perform. (15)	38 (45.2)
	It was surprising that the connections and functions of internal organs were linked. (9)	
	I am excited to actually see what I have not seen. (8)	
	It is interesting to be out of the frame and limit of the school class. (6)	
Focusing	It seemed to get out of my mind. (10)	24 (28.6)
	I only saw Cadever in front of me. (8)	
	It sounds like the teacher's explanation and voice are heard. (6)	
Knowing	I understood and understood the principles. (9)	22 (26.2)
	Explaining mechanism and discussing each other. (7)	
	Understanding structure and function and understanding the whole. (6)	
Total		84 (100.0)

[†] Multiple responses.

‘감사’ 47.1%였다. 각 범주에서 빈도수가 높은 대표적인 진술문은 ‘존엄’에는 ‘존엄’에는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을 느낌’(19개), ‘감사’에는 ‘배울 수 있도록 자신을 기증한 망자에 대한 감사함’(24개)이 포함되었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내용분석법을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카테바 실습교육 경험의 불안, 몰입, 성찰 영역에 관해 분석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카테바 실습교육 참여 경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불안은 ‘걱정됨’, ‘두려움’, ‘놀라움’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연구[3,7,11,18]에서 카테바 실습 교육 참여 후 학생들이 불안, 두려움, 슬픔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불안 영역 중 ‘걱정됨’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자신이 카테바 실습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하며 무엇을 보게 될지 구체적으로 예상을 하기 어렵고 교육자의 설명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지 사전 학습이 부족한 것에 대한 걱정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특히 Kim과 Chae[18]의 연구에서 ‘낯선 기다림’, ‘가야할 막연한 여정’으로 도출한 결과와 유사하여 카테바 실습교육 후 학

생들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효능감은 간접경험이 많을수록, 전공지식이 확고할수록 어떤 결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으로[14,15,23] 카테바 실습 교육 전 사전학습과 일정 및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실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불안 영역 중 ‘걱정됨’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낸 범주는 ‘두려움’ 이었는데, 이는 Davis, Bates, Ellis와 Roberts[6]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인체해부학 실습을 경험하며 ‘막연한 두려움’, ‘긴장’과 함께 ‘기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대학생 인체해부관찰경험에 대한 국내의 현상학적 연구[18]에서도 ‘길썬의 양가감정’으로 의미를 도출하였고 두려움과 긴장, 불안의 개념을 포함하여 보고하였다. 카테바 실습교육 중 학생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과 긴장이 포함된 양가감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카테바 실습교육 전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들이 함께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실습기간 중 지속되는 양가감정에 대해서는 적절히 중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카테바 실습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몰입 영역에서 ‘흥미로움’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을 배우게 될지에 대한 기대, 내부 장기를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접촉하면서 신기함과 흥분을 경험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수업의 틀과 제한에

Table 4. Scope of Reflection

Categories	Significant statements(n [†])	n [†] (%)
Dignity	I felt the value and importance of life. (19)	27 (52.9)
Appreciation	I came to think about death again. (8)	24 (47.1)
	I was thankful for the dead who donated myself to learn. (24)	
Total		51 (100.0)

[†] Multiple responses.

서 자유로운 것 자체에 대한 흥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해부학 실습 교육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에서[3,11] 보고된 호기심, 설렘, 기대, 흥미 등의 감정과도 유사한 맥락이라 할 것이다.

‘흥미로움’ 다음으로 ‘집중됨’이 높은 빈도를 보였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카테바 실습 교육에 몰입되어 참여자들의 시야에는 교육 중인 내용의 장기만이 보이며 교육자의 설명과 목소리만 귀에 들리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Kim과 Chae[18]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체해부 관찰경험의 현상학적 연구에서도 ‘수련에 빠져들’로 범주화하여 ‘독아들기 위한 노력’, ‘상대적으로 익숙해짐’의 개념을 포함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을 보였다. 또한 Arora와 Sharma[13]의 연구에서도 ‘집중되어감’, ‘익숙해져감’의 개념을 도출하여 해부학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어가며 점차적으로 적응력이 향상되었던 보고와 유사하였다.

세 번째 ‘알아감’의 범주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을 과정을 겪으며 전문적이며 실제적인 배움과 삶에 대해 인식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간호학도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며 학업에 대한 열의를 다져 책임감 있는 간호사로 성장하고자 하는 다짐을 하고 있었다. 의과대학생의 경우 해부학 실습 시 느끼는 감정의 억압과 분리, 카테바를 단순히 학습을 위한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황 속에서 균형을 맞추어 간다는 연구[12]와 간호대학생의 인체해부 관찰경험에 대한 현상학 연구[18]에서 합리화나 의도적으로 둔해지기, 인식의 전환 등을 통해 균형 맞추기를 해나가는 과정과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카테바 실습교육의 일정이 경과함에 따라 참여자들은 점차 몰입과 함께 익숙해지게 되었는데 이는 참여 동료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동요를 극복해나간다는 Lempp[26]의 보고와도 유사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과정인 성찰일지 쓰기는 내용분석 뿐만 아니라 해부학 실습 중에 발생하는 감정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카테바 실습의 단계마다 글쓰기 또는 대화를 통한 성찰의 필요성을 제언한 연구[18,27]에서의 참여자들에 대한 심리적 중재 방법으로도 적용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성찰’ 영역의 결과를 보면, ‘존엄’과 ‘감사’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이 평소 의문시 하지 않던 삶과

죽음, 종교 등 영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어 성찰을 통해 성장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의대상을 대상으로 한 Shapiro 등[12]의 연구에서 종교적 신념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해부학 실습을 통해 신체에 대한 존엄과 환자에 대한 태도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고 한 Lempp[26]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간호현장에서 생명의료와 관련된 윤리적 갈등을 해결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참여자들은 카테바 기증자에 대한 감사와 이타적 삶에 대해 생각하며 인식의 전환을 경험하였는데 이는 의료인으로서의 이타적 치료자의 자세[14]와도 관련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카테바 실습 교육 일정 동안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촉진하고 장기기증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카테바 실습교육의 참여경험은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하게 될 간호대학생에게는 중요한 훈련의 한 과정이다. 그 경험이 관찰 또는 일부 접촉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참여자들이 겪는 신체적, 심리적 긴장과 동요는 실습 그 이상의 의미를 넘어 생명의 가치와 삶, 죽음의 의미를 성찰하게 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이 전문직 간호사로서 환자와의 관계를 숙고하여 직업 정체성을 재정립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카테바 실습교육 참여 경험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카테바 실습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D시 소재 D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중 카테바 실습교육에 참여한 20명을 대상으로 3일간의 성찰일지를 내용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카테바 실습교육 참여 경험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총 3개 영역, 8개의 범주, 21개의 의미 있는 진술문이 도출되었다. 불안 영역에서 ‘걱정됨’, ‘두려움’, ‘놀람’의 범주와 몰입 영역에서는 ‘흥미로움’, ‘집중됨’, ‘알아감’, 성찰 영역은 ‘존엄’, ‘감사’의 범주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대학생들의 카테바 실습교육 중 실습 진행 관찰시 경험할 수 있는 신체적, 심리적 반

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적응적인 카데바 실습을 위해 스트레스 대처, 윤리적 책임의식, 간호학생으로서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찾아갈 수 있도록 카데바 실습 교육과 함께 상담, 교육 및 성찰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유사연구로는 해부학 실습 관찰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18]가 유일한 실정으로 질적 내용분석의 연구방법을 적용한 본 연구는 다양한 관점과 방법론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는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확인한 영역과 범주, 의미 있는 진술의 통합을 통해 참여자들의 경험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부정적 영향과 관련된 경험에 대한 예방적 프로그램 개입의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성찰일지에 대한 내용분석으로 참여자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제한을 가진다. 따라서 인간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또는 경험의 의미와 맥락, 의미 있는 진술에 포함된 개념과 개념과의 관계 및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참여자들의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와 관련된 자료의 탐구를 위해 다른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해볼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J. K. Kim, M. S. Jung, K. S. Jang, J. H. Kim, E. K. Kim, H. J. Lee, Y. M. Kim, S. Y. Kim, E. J. Park, "Analysis of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for 3 years(2007-2009)",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6, no. 4, pp. 517-526, 2010.
- [2] Y. J. Yi, K. S. Cho, "Survey on the students's evaluation and the administrative status of biological nursing science subjects in advanced practice nursing programs",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vol. 13, no. 3, pp. 193-203, 2011.
- [3] M. A. Choe, Y. S. Byun, Y. S. Seo, A. R. Hwang, H. S. Kim, H. S. Hong, et al., "A study on the degree of need of human structure and function knowledge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vol. 1, no. 1, pp. 1-24, 1999.
- [4] J. H. Sim, "The learning effects of instructional media on anatomy classes in a nursing college",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vol. 11, no. 1, pp. 51-58, 2009.
- [5] K. S. Lee, E. O. Choi, J. S. Jeong, "Survey of curriculum for 4 subjects (structure and function of body, clinical microbiology, pathophysiology, & mechanism and effect of drugs) of biological nursing in undergraduate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vol. 16, no. 1, pp. 17-25, 2014.
DOI: <http://dx.doi.org/10.7586/jkbns.2014.16.1.17>
- [6] C. R. Davis, A. S. Bates, H. Ellis, A. M. Roberts, "Human anatomy: let the students tell us how to teach", *Anatomy Science Education*, vol. 7, no. 4, pp. 262-272, 2014
- [7] J. C. McLachlan, J. Bligh, P. Bradley, J. Searle, "Teaching anatomy without cadavers", *Medical Education*, vol. 38, pp. 418-424, 2004.
- [8] L. J. Rizzolo, W. B. Stewart, "Should we continue teaching anatomy by dissection when?", *Anatomical Record (Part B: New Anatomist)*, vol. 289, pp. 215-218, 2006.
- [9] J. H. Sim, "learning of instructional media on anatomy classes in a nursing college",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vol. 11, no. 1, pp. 51-58, 2009.
- [10] D. I. Kim, "Questionnaire survey analysis on necessity of cadaveric dissection for nursing students-in scope of nursing students and professor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vol. 28, no. 2, pp. 119-125, 2015.
DOI: <http://dx.doi.org/10.11637/kjpa.2015.28.2.119>
- [11] C. Saylam, H. Coskunol, "Orientation lesson in anatomy education", *Surgical and Radiologic Anatomy*, vol. 27, no. 1, pp. 74-77, 2005.
- [12] J. Shapiro, V. P. Nguyen, S. Mourra, M. Ross, R. Leonard, "The use of creative projects in a gross anatomy class", *Journal for Learning through the Arts*, vol. 2, no. 1, Article 20, 2006.
- [13] L. Arora, B. R. Sharma, "Assessment of role of dissection in anatomy teaching from the perspective of undergraduate students: a qualitative study", *Ibnosina Journal of Medicine and Biomedical Sciences*, vol. 3, no. 2, pp. 59-65, 2011.
- [14] G. Y. Choi, J. M. Kim, J. H. Seo, H. J. Sohn, "Becoming a doctor through learning anatomynarrative analysis of the educational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vol. 22, pp. 213-224, 2009.
- [15] S. I. Oh,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oward autops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Forensic nursing Graduate School of Forensic Investigative Scienc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2010.
- [16] M. R. Lee, "A study on the spiritual well-being and attitudes to death in nursing students after anatomy cadaver practic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5, no. 4, pp. 287-295, 2015.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5.08.29>
- [17] W. S. Kim, "The effect of observation program of cadaver dissection for the paramedica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vol. 25, no. 2, pp. 77-86, 2012.
- [18] M. H. Kim, M. J. Chae, "A Study of Student Nurses' Observation Experiences of Human Body Dissection",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vol. 14, no. 2, pp. 94-102, 2012.

DOI: <http://dx.doi.org/10.7586/jkbns.2012.14.2.94>

- [19] K. Krippendorff,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2003.
- [20] D. H. Lee, S. H. Se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on Health Emotion of Public Servant Focus on Health Emotion Dairy", *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Vol. 11, no. 3, pp. 177-193, 2011.
- [21] K. S. Shuyler, K. M. Knight, "What are patients seeking when they turn to the internet?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of questions asked by visitors to an orthopedics web site",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vol. 5, no. 4, e24, 2003.
DOI: <https://doi.org/10.2196/jmir.5.4.e24>
- [22] L. K. Chan, S. K. Shum, "Analysis of students' reflective essays on their first human dissection experience", *Korean Journal Medical Education*, vol. 23, no. 3, pp. 209-219, 2011.
DOI: <http://dx.doi.org/10.3946/kjme.2011.23.3.209>
- [23] K. H. Jo, G. J. An, K. C. Sohn,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of suicidal ideation in Korean college students", *Collegian*, vol. 18, no. 2, pp. 87-92, 2011.
DOI: <https://doi.org/10.1016/j.colegn.2010.11.001>
- [24] K. H. Jo, G. J. An,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experiences with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among Korean nursing students", *Japan Journal of Nursing Science*, vol. 11, no. 2, pp. 79-86, 2014.
DOI: <https://doi.org/10.1111/jjns.12006>
- [25] G. J. An, "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of experiences on concept mapping for pathophysiolog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vol. 17, no. 4, pp. 356-362, 2015.
DOI: <http://dx.doi.org/10.7586/jkbns.2015.17.4.356>
- [26] H. K. Lempp, "Perceptions of dissection by students in one medical school: Beyond learning about anatomy: a qualitative study", *Medication Education*, vol. 39, pp. 318-325, 2005.
DOI: <https://doi.org/10.1111/j.1365-2929.2005.02095.x>
- [27] L. J. Rizzolo, "Human dissection: an approach to interweaving the traditional and humanistic goals of medical education", *Anatomical Record*, vol. 269, pp. 242-248, 2002.
DOI: <https://doi.org/10.1002/ar.10188>

정 추 영(Chu-Young Jeong)

[종신회원]



- 2014년 8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인간 심리의 이해

서 영 숙(Young-Sook Seo)

[종신회원]



- 2011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5년 9월 ~ 현재 :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기초간호학, 간호관리학, 만성질환